



주 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공현 대축일”	2009년 1월 4일
복음 묵상:	[마태 2,1-12]	[이사야 60,1-6]	[에페 3,2.3 - 5-6]

처음에 동방 박사들은 호기심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큰 별을 보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 별이 나타내는 인물을 꼭 찾아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별의 인도에 따라 낮에는 매우 뜨겁고, 밤에는 매우 추운 사막 안에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정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별빛이 비추는 데로 자신들이 따라가고 있음을,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 별이 나타내는 인물을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화의 과정을 겪었기에 그들은 베들레헴의 춤고 냄새나는 허름한 마구간의 말 여물통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처럼 그들도 빛이신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눈을 낮추었기에, 아기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여정은 동방 박사들이 걸었던 그 길과 같습니다. 마음 갈아서는 항상 좋은 길, 곧은 길을 걷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르막길을, 때로는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실망과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과감하게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 길이 보이지 않고 두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따라 갈 때 우리들의 눈과 마음은 차츰 정화되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의 진면모를 알아보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별빛의 인도를 잘 따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채지웅 신부님 강론중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최주남 예로니모 신임 성가대 단장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해를 이끌어 가실 단장님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듬뿍 내려주시길 기도중에 주님께 간청해 주십시오.
-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 2개월여정으로 한국에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공지 사항:
 1. **화답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1080>



*** 나이가 들면 지켜야 할 7 가지 사항 ***

1. 깨끗하게 살기
2. 옷을 깨끗하게 잘 입기
3. 항시 웃으며 살기
4. 적절할 때 돈을 쓸 줄 알기
5. 여러 사람과 자주 어울리기
6. 항시 욕심을 버리기
7. 잔소리 하지 말기



예수께서 헤로데왕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나셨는데 그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왕이 당황한 것은 물론, 예루살렘이 온통 술렁거렸다. 왕은 백성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 놓고 그리스도께서 나실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유다 베들레헬입니다. 예언서의 기록을 보면, '유다의 땅 베들레헬아, 너는 결코 유다의 땅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영도자가 너에게서 나리라' 고 하였습니다."

그 때에 헤로데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 보고 그들을 베들레헬으로 보내면서 "가서 그 아기를 잘 찾아 보시오.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찾거든 알려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 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이를 보고 그들은 대단히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박사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 가지 말라는 하느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 갔다.

1분 명상

♡천천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



서서히 지는 2008 년의 태양이여!

요즘 세상을 보면 마치 육상 선수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듯이 빠른 것이 미덕인 사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디지털 기계는 물론이고 일상 전반의 문화가 '빨리 더 빨리'라는 구호 아래 숨을 헐떡이며 서로 앞다투어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빠른 성장과 발전 아래에 더 풍요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습은 예전보다 더 행복하고 편안한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 역시 휴대전화가 생기고부터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조금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약속시간이 되면 바로 휴대전화를 보고 조금 망설이다 전화를 걸어 조금증을 드러내는 제 모습을 봅니다. 휴대전화 없을 때는 약속 장소를 서점이나 한적한 곳으로 정해 책을 읽으며 기다리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문명의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 살기에 급급한 현대인의 모습이 조금씩 제 몸과 마음에도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느님은 빨리빨리 우리를 채워주시기보다 천천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순간을 온전히 맞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탕;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